
일반논문

www.kci.go.kr

정치적 정체성과 상상력*

- 알베르 메미와 아실 음벰베를 중심으로 -

이 영 목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 서론

이 연구를 구상할 때 우리가 처음 세웠던 목표는 식민주의 체제와 후기식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정체성과 정치적 상상력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대적 주체성을 구성하는 특징으로서의 상상력의 작용”¹⁾을 두 체제를 대표하는 두 불어권 저자의 글을 통해 살펴보고 양

* 본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3-A00014).

1) «the work of the imagination as a constitutive feature of modern subjectivity», Arjun Appadurai,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p. 3. 강조는 저자 자신의 것. 이 개념에 관해서는 같은 책, pp. 5-11 참조.

주제어: 알베르 메미, 아실 음벰베, 식민주의, 후기식민주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Albert Memmi, Achille Mbembe, colonialisme, postcolonialisme, Afrique francophone

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있었다. 1957년, 알제리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발표된 알베르 메미의 『식민자의 초상/피식민자의 초상』²⁾과 2000년에 발간된 아실 음벰베의 『후기식민에 관하여 - 오늘날 아프리카의 정치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³⁾은 두 저자가 식민주의와 후기 식민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제목이 뚜렷이 시사하는 두 저작의 내용에서 볼 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선택으로 보였다.

위와 같은 목표 설정은 우선 식민주의와 후기식민주의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와 관계가 깊다.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후기식민주의라고 번역하는 ‘post-colonialism’이라는 용어는, 이미 ‘colonialism’이라는 단어가 그랬던 것처럼, 정의하기 매우 힘들며 수많은 논쟁을 촉발해왔다.⁴⁾ 그러나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리하자면, ‘식민주의’가 식민종주국의 직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후기-식민주의’는 “식민지배 및 그 유산에 대한 이의제기”,⁵⁾ 또는 “식민 직후의 신비한 효과를 갖는 기억 상실에 대한 이론적 저항”⁶⁾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민주의 체제에서 피식민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라면, 후기식민주의 체제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보다 문화적인 요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2) Albert Memmi, *Port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 et d'une préface de Jean-Paul Sartre, Gallimard, 1985.

3) Achille Mbembe, *De la postcolonie. Essai sur l'imagination politique dans l'Afrique contemporaine*, Karthala, 2000.

4) 예를 들어, Ania Loomba, *Colonialism/Postcolonialism*, Routledge, 1998과 릴라 간디 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이영옥 역, 현실문화연구, 2002를 보라.

5) «the contestation of colonial domination and the legacies of colonialism», Loomba, *op.cit.*, p. 12.

6) 간디, *op.cit.*, p. 12. 이어서 저자는 “포스트 식민주의는 식민 과거를 다시 방문하여 기억하고, 특히 따져 물으려는 학문적 임무를 맡은 하나의 학문 분과적 기획”이라고 정의한다.

다. 따라서 우리는 두 시기를 대표하는 두 저자의 텍스트에서 두 용어의 구별에 상응하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즉, 한편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이,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최초의 가설은 한편으로는 옳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선, 정치적 정체성과 상상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양자에게서 모두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식민체제와 후기식민 정치구조 양자 모두에서 생산, 교환, 수용되는 이미지들이 식민자와 피식민자,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메미가 자신의 저작에서 한 쌍의 “초상”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식민자가 원했고 퍼뜨린 그 신화적이고 깎아내리는 초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피식민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체험된다. 이리하여 그 초상은 일정한 현실성을 얻고 피식민자의 실제적인 초상의 일부가 된다.⁷⁾

음벰베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식민주의 시대의 지배 양식, 즉 “그 연속 관계들은 토착민에 대한 상상체계와 그 정체성과 관련된 일군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며”,⁸⁾ 이를 대체한 지배양식인 “후기식민 절대권력은 그

7) «Souhaité, répandu par le colonisateur, ce portrait mythique et dégradant finit, dans une certaine mesure, par être accepté et vécu par le colonisé. Il gagne ainsi une certaine réalité et contribue au portrait réel du colonisé.» Memmi, *op.cit.*, pp. 106-107. 이후 강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저자 자신의 것.

8) «Ces relations d’assujettissement reposaient sur un imaginaire de l’indigène et un ensemble de croyances concernant son identité.» Mbembe, *op.cit.*, p. 54. 여기서 “상상체계와 일군의 믿음”이란 “토착민” 자신의 그것만이 아니라 “토착민”과 “식민자” 양자가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며 공유하는 그것을 의미한다.

자체로서는, 일반적인 권력 기술(국가와 그 기구들)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상상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내적 일관성과 나름의 합리성을 지닌 지배양식⁹⁾이다. 식민체제에서건 후기식민체제에서건 정치적 정체성은 “원초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권위로 변화시키는 효과를 지닌 상상적 능력¹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분명하지 않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메미의 저작에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은 음벰베의 저작에서와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았다. 이 사실은 메미의 저작을 프랑스에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르트르의 지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르트르는 이 저작에 붙인 「서문」¹¹⁾에서 메미의 저작의 독창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트집(chicanes)”을 잡는다. 모두 여섯 페이지를 차지하는 그 단문에서 두 페이지를 차지하는 이 “트집”은 바로 메미의 논리가 취하는 “순서(ordre)”에 관련된 것이다. 사르트르가 보기에는 “인종주의는 체제 자체 안에 자리잡고 있다.”

인종주의는 이미 거기 있다. 식민주의적 프락시스의 등에 업혀, 매순간 식민 기구에 의해 배태되어, 두 종류의 개인을 규정하는 그 생산관계에 의해 지탱되며.¹²⁾

9) «Le potentat postcolonial était donc, en soi, une formule de domination qui, tout en participant de technologies universelles(un Etat et ses appareils), avait sa cohérence interne et sa rationalité propre tant du point de vue politique, économique qu’imaginaire.» *Ibid.*, p. 72.

10) «une capacité imaginaire dont l’effet était de convertir la violence fondatrice en autorité autorisante», *ibid.*, p. 43. 여기서 “원초적 폭력”이란 사회 구성을 위해 행해지는 최초의 폭력을 의미한다.

11) Sartre, “Préface de Jean-Paul Sartre”, Memmi, *op.cit.*, pp. 21-26.

12) «Le racisme est déjà là, porté par la praxis colonialiste, engendré chaque minute par l’appareil colonial, soutenu par ces relations de production qui définissent deux sortes d’individus [...]» *Ibid.*, p. 23.

다시 말해서, 메미가 그리고 있는 인종주의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 특정한 형태인 식민주의에 의해, 즉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메미가 비록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오류는 주관성에서 출발하여 객관적 구조에 도달했다는 점에 있다. 요컨대, 사르트르의 눈에 메미의 사유는 “관념론(idéalisme)”이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르트르의 비판은 메미의 사유가 가진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메미의 분석이 당시의 일반적인 ‘좌파’ 사상가들의 분석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모든 식민현상을 사회경제적 ‘하부구조’, 또는 ‘체계’로 환원시키지 않고, 그 문화의 고유한 - 즉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 논리를 도출해낸 데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원래 목표에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가할 필요를 느꼈다. 이 글의 주된 주제는 여전히 정치적 정체성과 상상력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두 저자의 글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차이점은 식민주의와 후기식민주의라는 상이한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두 저작에서, 식민 체제 및 후기식민 체제에서 정치적 상상력, 즉 넓은 의미의 정치를 이루는 권력의 형성, 유지, 변화 및 때로는 전복에 관련된 이미지들의 생산, 강요, 자발적 수용, 변형 등이 지배자와 피 지배자의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개념적, 사상적 내용은 물론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표현을 원용하자면 ‘담론의 질서(ordre du discours)’, 다시 말해서 이 두 담론이 논거들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방식, 즉 담론의 모양새(facture) 역시 담론의 내용만큼 우리에게 흥미롭다. 그리고 그 담론의 모양새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룬다.

2. 알베르 메미: 식민주의의 “벗어날 수 없는 논리”

알베르 메미의 2부작 『식민자의 초상/피식민자의 초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식민현상이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냉혹한 논리, “벗어날 수 없는 논리(logique implacable)”이다. 저자는 이 논리를 「1966년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식민 관계는 식민자와 피식민자를 일종의 벗어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얽어매고, 그들의 각각의 모습을 만들어내며 그들의 행동을 규정한다.¹³⁾

이 논리는 식민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인 피식민자뿐만 아니라 식민자의 정체성의 형성에도 엄밀한 정확성을 가지고 작동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식민자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가장 수동적인 대상으로 남기 때문에, 즉 피식민자의 정체성 형성의 가장 큰 요인은 식민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논리의 분석은 식민자 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저작의 정확한 제목이 『식민자의 초상이 앞에 붙은 피식민자의 초상』이 되는 이유가 있다.

통칭하여 식민자(colonisateur)라고 부르는 대상을 메미는 ‘식민지거주자(colonial)’, ‘식민지배자(colonisateur)’, ‘식민주의자(colonialiste)’로 나누어 분석한다.

“식민지거주자는 식민지에 살지만 특권이 없는 사람, 생활 조건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동급인 피식민자보다 우월하지 않은 사람”¹⁴⁾으로 정의

13) «La relation coloniale [...] enchaînait le colonisateur et le colonisé dans une dépendance implacable, façonnait leurs traits respectifs et dictait leurs conduites.» Memmi, «Préface de l'auteur à l'édition de 1966» *op.cit.*, p. 13.

14) «Le colonial serait l'Européen vivant en colonie mais sans privilèges, dont les conditions

할 수 있다. 굳이 예를 찾자면, 식민지에 우연히, 즉 식민 현상이 제공하는 특권과 혜택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게 된 “순진하며”, “성격상, 또는 윤리적 신념 때문에 선의의 유럽인”¹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메미는 곧이어 단언한다. “이렇게 정의된 식민지거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민지의 모든 유럽인은 특혜수혜자이기 때문이다.”¹⁶⁾ 식민지거주자는 아무리 자신이 원한다 해도 단순한 “식민지거주자”로 남아있을 수 없다.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그는 “제도, 습속, 사람들에 의해 특혜수혜자로 받아들여지기”¹⁷⁾ 때문이다.

“모든 식민지거주자는 즉각적으로 식민지배자의 위치에 있지만, 모든 식민지배자가 숙명적으로 식민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¹⁸⁾ “식민지배자”는 식민 현상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 따라 “자신을 부정하는 식민지배자(*colonisateur qui se refuse*)”와 “자신을 받아들이는 식민지배자(*colonisateur qui s'accepte*)”로 나뉜다. 선의의 식민지거주자의 논리적 발전 형태인 “자신을 부정하는 식민지배자”에게 거부하는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하나는 식민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벗어나는 것, 즉 이주이며, 다른 하나는 식민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물론 그 거부가 반드시 “격렬한 거부(*refus violent*)”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부를 선택하는 순간, “그의 삶은 모순의 표지 아래 놓이게 되며, 그 모순들은 그의 일상생활의 매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de vie ne seraient pas supérieures à celles du colonisé de catégorie économique et sociale équivalente.» *Ibid.*, p. 35.

15) *Ibid.*, p. 35.

16) «le colonial ainsi défini n'existe pas, car tous les Européens des colonies sont des privilégiés.» *Ibid.*, p. 36.

17) *Ibid.*, p. 42.

18) «Si tout colonial est en posture immédiate de colonisateur, il n'y a pas de fatalité pour tout colonisateur à devenir un colonialiste.» *Ibid.*, p. 43.

그에게서 모든 일관성과 모든 정신적 평정을 빼앗아갈 것이다.”¹⁹⁾ 그 모순은 이웃이나 동료들과의 갈등에서, 좌파 식민지배자가 자신의 좌파적 신념과 민족주의적 해방운동 사이에서 느끼는 불일치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모순이다. 그가 거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일부분, 식민지에 살기를 받아들이자마자 그가 천천히 되어 가는 것”²⁰⁾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선의의 식민지배자”, “자신을 거부하는 식민주의자”에게 남은 길은, “자신의 모순과 정신적 불편에 종지부를 찍는” 방법은 식민지를 떠나며 특권을 버리는 길 밖에 없다.²¹⁾

이러한 “극단의 조치(mesure extrême)”를 거절하는 “식민지배자”는 식민관계의 인정, 정당화 및 강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신을 식민지배자로 받아들이는 식민지배자”가 바로 “식민주의자”다. 식민주의자의 태도는 식민지에 살면서도 식민지배자로서의 자신을 거부하는 식민지배자의 태도보다 더 논리적이며 정서적으로도 더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결국, 식민주의자는 식민지배자의 자연적 소명이다”²²⁾ 그러나 이 논리성과 일관성은 단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식민주의자는 곧 자신의 양면성(ambiguïté)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식민지배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이 “정당성 없는 특혜수혜자(privilégié non légitime)”, 즉 “권력찬탈자(usurpateur)”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은 자기 자신이 비난하는 가치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식민주의자는 메미가 “네로 콤플렉스(complexe de Néron)”²³⁾라고 부르는 심리 상태를 발전시키게 된다.

19) «Sa vie se trouve désormais sous le signe d'une contradiction qui surgit à chacun de ses pas, qui lui enlèvera toute cohérence et toute quiétude.» *Ibid.*, p. 44.

20) *Ibid.*, p. 44.

21) *Ibid.*, pp. 65-66.

22) «A tout prendre, le colonialiste est la vocation naturelle du colonisateur.» *Ibid.*, p. 67.

23) *Ibid.*, pp. 72-76.

즉, “권력을 빼앗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제거라는 극단적 유혹”²⁴⁾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제거는 자신의 부정으로 귀결되기에, 식민주의자의 경우 이러한 “극단적 유혹”은 유혹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정신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식민 체제를,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이 인종주의이다. 인종주의적 태도란 첫째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차이를 발견하여 강조하고, 둘째로 식민자에게 유리하게 그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고, 셋째로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절대화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²⁵⁾ 식민주의는 인종주의로 귀결된다.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의 “우연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불가분한 구성요소”이며, “식민현상의 최고의 표현이자 식민주의자의 가장 의미 있는 특질”²⁶⁾인 것이다.

피식민자의 초상은 식민자가 제시하고 강요하는 이미지를 내면화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메미는 이러한 내면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식민지배자가 완전히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객관적으로 주인인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가 자신의 정당성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당성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피식민자가 객관적으로 노예인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가 자신을 노예로 받아들여야 한다.”²⁷⁾

24) «cette suprême tentation: la suppression morale et physique de l'usurpé», *Ibid.*, p. 67.

25) *Ibid.*, p. 90.

26) «Le racisme apparaît, ainsi, non comme un détail plus ou moins accidentel mais comme un élément consubstantiel au colonialisme. Il est la meilleure expression du fait colonial, et un des traits les plus significatifs du colonialiste.» *Ibid.*, p. 93.

27) «Pour que le colonisateur soit complètement maître, il ne suffit pas qu'il le soit objectivement, il faut encore qu'il croie à sa légitimité; et pour que cette légitimité soit entière, il ne suffit pas que le colonisé soit objectivement esclave, il est nécessaire qu'il accepte tel.» *Ibid.*, p. 107.

다시 한 번 지적하거니와, 메미의 분석의 독창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정체성의 형성에는 식민현상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필요하다,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초상은 “식민지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식민지배는 그 정체성 형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객관적” 조건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며, 그 객관성에 의해 촉발되지만 고유한 논리를 지닌 주관적, 문화적 요인이 필요하다. “피식민자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정한 지지”가 필요하며 그 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피식민자의 “신화적이고 깎아내리는 초상”인 것이다.

“식민지배자의 요구에서 태어난 피식민자를 파괴하려는 망상”²⁸⁾의 구체화인 피식민자의 초상이 따라서 부정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피식민자는 “역사 외부에, 정치 외부에 위치한 존재”²⁹⁾이며, 피식민자의 역사적 정체성의 거부 “문화적 기억상실(amnésie culturelle)”로 이어진다. 이 현상은 지배국의 문화 이외의 모든 문화, 특히 피지배자의 고유 문화를 말살하는 식민지 학교 정책과 강요된 이중 언어의 사용 등으로 심화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식민자는 무엇보다도 “결핍의 존재(être de carence)”로 정의된다.

피식민자는 이러한 비인간화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모든 피식민자에게는 변화에 대한 근본적 요구가 존재한다.”³⁰⁾ 이 변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되는데, 하나는 “타자가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식민지배가 자신에게서 박탈한 모든 차원을 다시 정복하는 것”³¹⁾이다. 첫 번째 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와 식민지배자를

28) «Ce délire destructeur du colonisé étant né des exigences du colonisateur», *ibid.*, p. 106.

29) «être placé hors de l'histoire et hors de la cité», *ibid.*, p. 106.

30) «Il y a, dans tout colonisé, une exigence fondamentale de changement.» *Ibid.*, p. 135.

31) «Il tente soit de devenir un autre, soit de reconquérir toutes ses dimensions, dont l'a amputé la colonisation.» *Ibid.*, p. 136.

사랑하는 것, 즉 ‘동화(assimilation)’의 욕망이다. 그러나 동화는 피식민자에게 여러 심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식민지배자의 거부 때문에 불가능하며, 근본적으로 “식민 관계의 소멸”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피식민자에게 남은 출구는 단 하나, “반항(révolte)”뿐이다.

식민 상황은, 그 내적 숙명성 때문에, 반항을 부른다. 식민 조건은 개조될 수 없으며, 굴레와 같아서 부서질 수밖에 없다.³²⁾

그러나 식민지배자의 거부와 자아 긍정에서조차도 피식민자는 양면적이고 분열된, 이중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피식민자는 식민지배자의 가치들의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하며, 식민지배자의 사유 기술과 투쟁 방식을 사용”³³⁾하기 때문이다. 메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반항 이전이나 반항 과정에서도, 피식민자는 끊임없이, 모델로서든 안티테제로서든 식민지배자를 염두에 둔다. 피식민자는 계속 식민지배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현실과 자신이 되길 원하던 것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되길 원했던 것과 지금 자신이 스스로 되어가는 것 사이에서 분열된다. 하지만 자아와의 고통스러운 불일치는 여전히 남는다. 피식민자의 완전한 치유를 보기 위해서는, 그의 소외가 완전히 그쳐야 할 것이다. 즉, 반항기를 포함한, 식민지배의 완전한 소멸을 기다려야 한다.³⁴⁾

32) «La situation coloniale, par sa propre fatalité intérieure, appelle la révolte. Car la condition coloniale ne peut être aménagée; tel un carcan, elle ne peut qu'être brisée.» *Ibid.*, p. 143.

33) «le colonisé revendique et se bat au nom des valeurs mêmes du colonisateur, utilise ses techniques de pensée et ses méthodes de combat.» *Ibid.*, p. 144.

34) «Pendant comme avant la révolte, le colonisé ne cesse de tenir compte du colonisateur, modèle ou antithèse. Il continue à se débattre contre lui. Il était déchiré entre ce qu'il était et ce qu'il s'était voulu, le voilà déchiré entre ce qu'il s'était voulu et ce que,

식민거주자의 식민주의자로의 변화와 피식민자의 반항이 필연적인 것처럼 과연 이 “피식민자의 완전한 치유” 역시 필연적인 것일까? “소원이 아니라 사실확인”³⁵⁾의 영역에 속하는 이 책에서 저자는 선부른 전망을 삼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식민자의 완전한 치유”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식민 이후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3. 아설 음벰베: “후기식민”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논리

식민지배에서의 해방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러 사회의 복합적 상황의 분석이 아설 음벰베가 그의 저작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다. 음벰베는 자신이 만들어낸 용어인 “후기식민(postcoloni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후기식민이라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단순히 그것은 주어진 역사적 도정의 고유한 정체성, 즉 식민지배 - 이는 또 전형적인 폭력관계로 간주되어야 한다 - 라는 경험에서 최근에 벗어난 사회들의 정체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후기식민은 내적 일관성, 고유한 기호체계, 시물라크르를 만들거나 스테레오타입을 재구성하는 나름의 방식, 특유한 과도함의 예술, 주체에게서 그의 정체성들을 빼앗는 특별한 방법들을 갖춘 혼돈의 다수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서 권력이 자신을 상상하는 기호들의 체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일련의 단체, 제도, 포획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후기식민을 자신이 행사될 수 있

maintenant, il se fait. Mais persiste le douloureux décalage d'avec soi. Pour voir la guérison complète du colonisé, il faut que cesse totalement son aliénation: il faut attendre la disparition *complète* de la colonisation, c'est-à-dire période de révolte comprise.» *Ibid.*, p. 154.

35) «Il ne s'agit nullement là d'un *vœu* mais d'un *constat*.» *Ibid.*, p. 154.

는 대상과 발휘될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뚜렷이 구별되는 폭력의 체제로 만든다.³⁶⁾

저자 자신이 “후기식민”의 특성 중의 하나라고 간주한 “과도함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정의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내용보다는 논의의 진행방식이다. 저자는 우선 “단순한” 정의를 시도한다. 이 첫 번째 정의가 “단순한” 이유는 그것이 “후기식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보편성 속에서 규정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 보편성은 이미 그 자체로 보편적 상황 “la colonisation”의 산물인 여러 사회의 경험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며 “l’identité [...] des sociétés”, 언어적으로는 정관사 및 부정관사의 단수형의 사용 “l’identité propre d’une trajectoire”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이 단순한 보편적 정의가 부정되고 “Mais plus que cela”, 특수성들의 나열에 의해 해체된다. 대체로 부정관사 복수형과 함께 사용된 특수성들 “manières spécifiques”, “façons particulières”의 열거에 의해 정의는 보편적 단수성에서 “혼돈의 다수성”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 역시 곧 부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후기식민”이 주관성의 영역인 “기호들의 체계”로 환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비로소 네 번째 단계의 보완(“또

36) «Quant à la notion de *postcolonie*, elle renvoie, simplement, à l’identité propre d’une trajectoire historique donnée: celle des sociétés récemment sorties de l’expérience que fut la colonisation, celle-ci devant être considérée comme une relation de violence par excellence. Mais plus que cela, la postcolonie est une pluralité chaotique, pourvue d’une cohérence interne, de systèmes de signes bien à elle, de manières propres de fabriquer des simulacres ou de reconstruire des stéréotypes, d’un art spécifique de la démesure, de façons particulières d’exproprier le sujet de ses identités. Elle n’est cependant pas qu’une économie de signes dans lesquels le pouvoir *s’imagine*. Elle consiste également en une série de corps, d’institutions et d’appareils de capture qui font d’elle un régime de violence bien distinct, capable de créer ce sur quoi il s’exerce ainsi que l’espace au sein duquel il se déploie.» Mbembe, *op.cit.*, pp. 139-140. 이탤릭체 강조는 원저자의 것이고 밑줄 강조는 우리의 것.

한)에 의하여 객관성을 보장받는 “후기식민”은 마침내 독자적 실체를 가진 개별 존재(“하나의 뚜렷이 구별되는 폭력의 체제”)로서 인식된다. 이중의 부정과 한 번의 보완을 거쳐서야 정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속된 부정과 보완을 통해 대상을 정의하고 파악하는 것은 이 저작에서 보이는 음베크의 사유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가 “후기식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은 구별되는 두 개의 역사적 단계를 통칭하는 용어다. 식민지배의 종식 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회들은 식민지 정치문화와 식민 시대 이전의 전통적인 전제정치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면서도³⁷⁾ 권력의 “순수한 독재화와 폭력화로 의 표류”³⁸⁾를 막는 일종의 “후기식민적 타협(compromis postcolonial)”³⁹⁾을 만들어냈다. 저자가 “후기식민 절대권력(potentat postcolonial)”⁴⁰⁾ 또는 “지배권(commandement)”이라고 부르는 정부 형태는 폭력(violence), 급여(allocations), 이양(transferts)을 그 토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에 의한 재화의 분배인 급여와 개인이 각종 공동체의 틀 안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부채의 형태인 이양⁴¹⁾으로 구체화되는 “재화의 재분배에서의 탄력성은 후기식민 정부 형태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불평등과 강제 관계를 도덕적으로 용인가능하게 만들었다.”⁴²⁾ 물론 이러한 행위들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몇몇 사회에서는 적어도 식민지배나 부정부상태, 또는 순수한 폭력적 독재보다는 ‘합리적’인 지배

37) *Ibid.*, p. 69.

38) «une dérive dans l'arbitraire pur et simple et dans la violence lapidaire», *ibid.*, p. 110.

39) *Ibid.*, p. 92.

40) *Ibid.*, pp. 72-73.

41) 예를 들어, (부정)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이들에게 이권을 보장하고 또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들이 바로 이 “이양”에 해당한다.

42) «C'est cette élasticité dans la redistribution des utilités qui fondait une part de la légitimité des formules postcoloniales de gouvernement, et qui rendait moralement tolérables les rapports d'inégalité et de coercition.» *Ibid.*, pp. 82-83.

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저자는 이를 “타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후기식민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고 그 국가에 진정으로 토착적인 뿌리를 제공”하던 그 “후기식민적 타협”마저 198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위협받게 된다. 첫째는 외적인 요인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둘째는 내적인 요인으로서, 이는 다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동원 형태의 출현”, “포식경제(économie de prédation)의 재출현에 따른 국가의 해체”, “전쟁과 무장 폭력의 일반화”⁴³⁾로 나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의 결합은 기존의 정부 형태를 파괴하고 “주권의 사유화(privatisation de la souveraineté)”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복종과 지배 양식인 “사적 간접 정부(gouvernement privé indirect)”⁴⁴⁾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후기식민 절대권력”과 “사적 간접 정부”라는 두 단계의 개념적, 사상적 내용이 아니라, 그 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논증의 양식이다. “사적 간접 정부”라는 새로운 통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저자의 시도는 이 독특한 논증 양식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우선 20세기말의 주된 정치적 사건의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성 및 주권의 평화와 국제 채무자들의 후견 아래로의 (은밀한) 편입”⁴⁵⁾이라고 말한다. 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네 차례의 수정을 가한다. 첫째로, “모든 차이를 고려할 때, 이 상황은 1870년대에 이집트와 튀니지가 처했던 상황을 상기시킨다.”⁴⁶⁾ 둘째로, “1980년대 말,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소간

43) *Ibid.*, p. 88.

44) *Ibid.*, pp. 117-118.

45) «l'effritement de leur indépendance et de leur souveraineté et la mise (subreptice) des Etats africains sous la tutelle des créanciers internationaux», *ibid.*, p. 108.

46) «Toutes proportions gardées, cette situation rappelle celle qui affecta l’Egypte et la Tunisie dans les années 1870.» *Ibid.*, p. 108.

유사한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어낸다.”⁴⁷⁾ 셋째로, “이 상황 - 그렇지만 이 상황을 단순한 재식민화 과정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데 - 은 그 자체로는 아프리카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⁴⁸⁾ 넷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주된 결과가 아프리카 경우에 특징을 부여한다.”⁴⁹⁾ 아프리카 국가들이 20세기 말에 처한 상황은 1870년대에 처한 상황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1980년대 말에 개발한 모델과도 다소간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아프리카에 고유한 것도 아니지만 아프리카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상황의 정의는 연속되는 부정과 보완, 유사성과 차이의 부각에 근거한 점근법적인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속적인 비교, 동일성 및 차이의 동시적 긍정과 부정, 일종의 자유로운 연상 작용과 유사한 논거들의 연결... 이처럼 서구의 형식 논리학의 단순함과도, 메미의 논리의 엄격한 필연성과도 거리가 먼 음벰베의 사유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후기식민적 사유의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던, “착종과 연쇄의 사유(une pensée de l'enchevêtrement et de la concaténation)”⁵⁰⁾이다. 그러나 이 사유는 서구의 식민지배가 남긴 혼돈의 상황에서 지역마다 다양한 특수성을 발판으로 자신의 지배권을 구축해 나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후기식민” 사회들이 가진 특유한 보편성,

47) «Au sortir des années quatre-vingts, les pays africains inaugurent un modèle plus ou moins similaire.» *Ibid.*, p. 108.

48) «Cette situation - que l'on ne saurait cependant assimiler à un procès de recolonisation pure et simple - n'a, en soi, rien de proprement africain.» *Ibid.*, p. 108.

49) «Deux conséquences majeures donnent cependant au cas africain un relief particulier.» *Ibid.*, p. 108.

50) Achille Mbembe, «Qu'est-ce que la pensée postcoloniale? Entretien avec Achille Mbembe», *Esprit*, déc. 2006, p. 119. ‘연쇄 concaténation’란 어원적으로는 쇠사슬을 이어놓는다는 뜻이며, 논리학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와 같은 요소들의 필연적 연관관계를 가리킨다. 그러나 수사학에서는 요소들의 연결이 반드시 논리적이어서 할 이유는 없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속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가 바로 그러한 수사학적 의미의 ‘연쇄’의 한 예다.

서구가 경험하지 못했고 따라서 개념화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논리적 사유이다.

4. 새로운 보편성을 찾아서

메미에게서 본토인은 식민지에 도착하여 그 체제에 편입되자마자 “식민지거주자”에서 “식민지배자”로 변한다. “식민지배자”는 권력찬탈자로서의 자신을 부정하고 식민지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자신을 받아들이고 “식민주의자”로 변하여 식민관계를 공고히 하며, “인종주의자”로서 그 관계를 영속화하려고 노력한다. 반면, 피식민자는 식민주의자가 강요하는 초상을 받아들여 “결핍의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식민주의자와 인종주의자가 지향하는 완전한 사물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식민자는 동화라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거나, 식민관계 자체에 대한 거부와 반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논리가 메미의 저작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주어진 식민지배의 현실 아래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는 양자 모두 “역동적인 톱니바퀴에 맞물려”,⁵¹⁾ 자기의 운명을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메미 자신이 결론에서 말하고 있듯이, 저자가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식민관계의 필연성, 그 전개와 필연성, 그 관계가 식민자와 피식민자에게 각인하는 필연적 용모”⁵²⁾이다. 메미의 논리는 필연성의 벗어날 수 없는 논리(logique implacable de la nécessité)이다.

음베크의 사유에는 이러한 논리의 기하학적 필연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사유는 “착종과 연쇄의 사유(une pensée de l'enchevêtrement et

51) «dynamiquement engrené», Memmi, *op.cit.*, p. 141.

52) «la nécessité de cette relation [coloniale], la nécessité de ses développements, les visages nécessaires qu'elle imprimait au colonisateur et au colonisé», *ibid.*, p. 156.

de la concaténation)”)⁵³)이다. 그것은 그 사유의 대상이 되는 후기식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착종”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유는 서구 근대가 주장하는 보편적 이성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서구의 보편적 이성이란 “보편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우연과 특수성 속에서 전개하는 하나의 합리성”⁵⁴)에 불과하며, 문제는 “아프리카 사회들에 모든 역사적 일관성을 부정하고 그 사회들을 근본적 이타성, 원초적 단계의 차이, 서구의 안티테제로 정의하는데 기여한 바로 그 개념구조와 허구적 재현만을 이용해서 현재 아프리카의 사회적, 정치적 상상력이 취하는 형태들에 대한 이해가능한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가”⁵⁵)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헤겔, 하이데거, 니체, 하버마스, 푸코 등에 이르는 서구의 인식론의 틀을 충분히 이용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을 끊임없는 비교와 수정을 통해, 즉 유사한 것의 연쇄를 통해 접근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두 담론의 질서의 차이를 식민주의적 담론과 후기식민적 담론의 차이로 환원할 수는 없다. 메미의 “벗어날 수 없는 논리”가 서구 근대의 보편적 합리성이라는 함정에의 매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메미의 저작의 특징은 첫째로는 그 목표가 “피억압자 일반”⁵⁶)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규정적이라는 점을

53) Achille Mbembe, «Qu'est-ce que la pensée postcoloniale?», p. 119.

54) «une certaine rationalité prétendant à l'universel, mais en vérité, se développant dans la contingence et le particularisme», Mbembe, *De la postcolonie*, p. 20.

55) «savoir s'il est possible de proposer une lecture intelligible des formes de l'imagination sociale et politique dans l'Afrique contemporaine en se servant uniquement de structures conceptuelles et de représentations fictives qui ont précisément servi à dénier aux sociétés africaines toute consistance historique et à les définir comme altérité radicale, différence à l'état primaire et antithèse par excellence de l'Occident.» *Ibid.*, p. 26.

56) Memmi, «Préface de l'auteur à l'édition de 1966» *op.cit.*, p. 12.

인식했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메미는 “정체성은 다수성과 분산 속에서 기원하며, 자신에 대한 참조는 양자 사이, 정품과 표절의 틈, 공동구성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⁵⁷⁾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후기식민적 사유의 선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식론적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사유의 형성은 새로운 담론 질서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메미와 음벰베의 독특한 담론의 모양새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식의 경계에서 추방하는 서구의 지배적 인식체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그것과 관계 하에서 진정한 다문화적 지식을 구성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준다.

57) «Au contraire, cette pensée insiste sur le fait que l'identité s'origine dans la multiplicité et la dispersion; que le renvoi à soi n'est possible que dans l'entre-deux, dans l'interstice entre la marque et la démarque, dans la co-constitution» Achille Mbembe, «Qu'est-ce que la pensée postcoloniale?», *op.cit.*, p. 119.

참고문헌

- Appadurai(Arjun),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Bamba(Abou B.), «Qu'est-ce que la postcolonie? Contributions à un débat francophone trop afrocentré», *Revue africaine des Livres*, mars 2006, 16-17.
- Luste Boulbina(Seloua), «Ce que postcolonie veut dire: une pensée de la dissidence», *Rue Descartes*, N° 58, PUF, 2007, 8-25.
- Lomba(Ania), *Colonialism/Postcolonialism*, Routledge, 1998.
- Mbembe(Achille), *De la postcolonie. Essai sur l'imagination politique dans l'Afrique contemporaine*, Karthala, 2000.
- _____, «Qu'est-ce que la pensée postcoloniale? Entretien avec Achille Mbembe», *Esprit*, déc. 2006, 117-133.
- Memmi(Albert), *Portrait du colonisé* précédé de *Portrait du colonisateur* et d'une préface de Jean-Paul Sartre, Gallimard, 1985.
- 릴라 간디 저, 이영옥 역(2002),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원고 접수일: 2011년 5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1년 5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26일

RÉSUMÉ

Identité et Imagination politiques
chez Albert Memmi et Achille Mbembe

LEE, Young-Mock

Le propos de cette étude consistait à établir des rapports entre l'identité politique et l'imagination politique dans les textes principaux des deux représentants respectifs de la pensée coloniale et de la pensée postcoloniale: Albert Memmi et Achille Mbembe. Nous avons supposé que les différences de deux pensées - rôle déterminant des facteurs socio-économiques dans le système colonial dans la pensée coloniale et mise en valeur du culturel dans la pensée postcoloniale - produiraient les spécificités des deux discours. Mais une fois constatée la primauté du culturel communément admise dans ces deux auteurs, nous sommes amené plutôt à nous intéresser à la facture même de leurs discours qu'aux contenus conceptuels et idéels de ceux-ci. Nous avons dégagé chez Memmi une «logique implacable de la nécessité coloniale» et chez Mbembe une «pensée de l'enchevêtrement et de la concaténation» qui consiste à l'approche graduel au fait à travers un mouvement continu de mises au point successives. Ces démarches de la pensée représentent leurs efforts

intellectuels qui visent à une élaboration d'un savoir inédit et original à l'écart de, et par rapport à, l'universalisme rationnel de l'Occident remis en cause.